

'탈박' 원더걸스 기대되네

〈탈 박진영〉

새 싱글 '아이 소 론리' 발표... 멤버들 자작곡 수록

걸그룹 원더걸스(선미·예은·유빈·혜림)가 '탈박'(탈 박진영)을 했다. 그간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해준 노래를 부르다가 처음으로 자작곡을 내세운 것이다.

올해로 데뷔 10년 차인 원더걸스는 5일 새 싱글음반 '아이 소 론리'(Why so lonely)를 내며 멤버들의 작사, 작곡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최근 강남구 청담동에서 인터뷰한 멤버들은 '탈박'이란 말에 맞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었다.

"박진영 프로듀서가 작년 8월 '아이 필 유' 앨범이 나왔을 때 단체톡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타이틀곡 내가 안 쓸테니 너희가 만들어서 가져오라고요. 지난 앨범 작업 때 저희에게 믿음이 생겼나봐요."(선미)

'탈박'을 하며 처음 선보인 장르는 레게 팝이다. 선미와 혜림, 작곡가 홍지상이 공동 작곡하고 유빈과 선미, 혜림이 함께 작사했다. 중독성 있는 기타 선율과 다채로운 리듬 변화가 재미있다.

예은은 "여러 팀을 꾸려 송라이팅 캠프를 해 나온 곡 중 가장 반응이 좋은 노래였다"며 "대중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곡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혜림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요즘 아이돌 그룹 대부분이 자작곡을 선보이는 경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예은은 "아이돌 음악이 철저한 기획으로 만들어진 상업 음악으로 인식됐는데 이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보고 싶은 단계에 온 것 같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3년 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하면서 4인조로 재정비하고

밴드로 변신해 화제가 된 이들은 이번에도 밴드를 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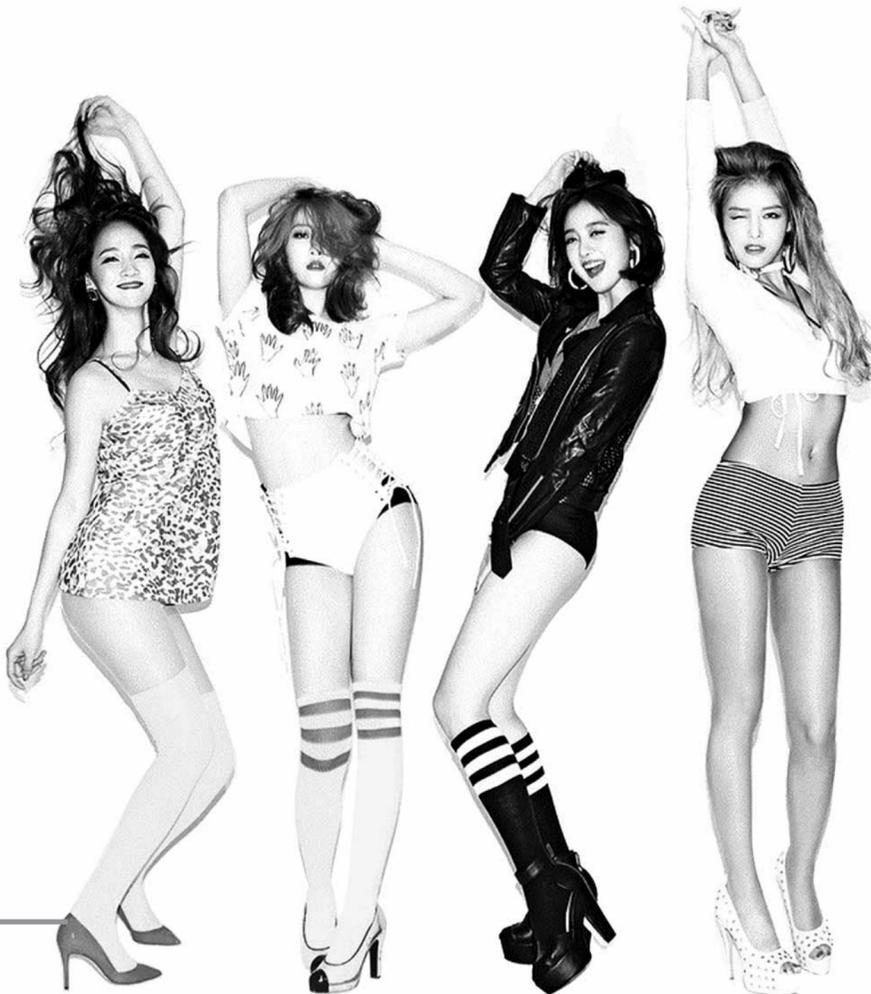
퍼포먼스를 무기로 출발한 걸그룹이니 밴드로 계속 도전하는데 대한 고민도 컸을 터. 드림 스틱을 잡은 지 3년인 유빈은 "우리 이미 악기에 대한 애정이 커 개별 연습은 물론 하루 3시간씩 꾸준히 합주했다"며 "굳이 밴드를 멈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춤추는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 음악은 한 곡이 되 두 버전으로 무대 연출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밴드에 도전하고 나선 것을 눈으로 치더라도 원더걸스는 편한 길을 가지 않는 팀으로 인식돼 있다. 인기 절정이던 2009년 갑자기 미국에 진출해 버스를 타고서 그룹 조나스 브라더스의 북미 투어 오프닝 공연을 하며 신인으로 돌아갔다. '노바디'(Nobody)로 빌보드 메인차트인 싱글차트 76위에 올랐지만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내년이면 이들은 데뷔 10주년을 맞는다. 장수 걸그룹 대열에 들지만 원더걸스도 그사이 멤버 탈퇴와 교체가 잦았다. 현아의 탈퇴와 유빈의 합류, 선미의 탈퇴와 혜림의 합류, 선예의 결혼 이후 팀 활동 중단, 선예·소희의 탈퇴와 선미의 재합류 등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다.

예은은 "우리가 밴드를 할 거라 상상 못했듯이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며 "회사와 팬들이 원더걸스란 이름을 지지해 주고 믿어줬기에 계속 앨범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을 평가해달라는 말에도 멤버들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은은 "박진영 프로듀서의 '살아있네'란 노래에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자가 강한 자'란 말야"란 공감되는 가사가 있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 잘해왔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양수경, 미니앨범으로 17년 만에 컴백

'사랑은 창밖에 빔볼 같아요'로 유명한 1990년대 인기 가수 양수경이 17년 만에 컴백한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양수경은 1999년 9집 '후애'(後愛) 이후 처음으로 신곡 한 곡을 담은 미니앨범을 이날 발표한다.

앨범에는 작곡가 하광훈 씨의 동생 하광성 씨가 만든 발라드 풍의 신곡 한 곡과 나훈아 등 양수경이 평소 좋아하던 다른 가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해 수록했다.

양수경은 1집 '떠나는 마음'으로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빔볼 같아요'와 '그대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 등을 내며 1990년대 대표 여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KBS와 MBC 10대 가수상을 비롯해 골든디스크상 등 국내 시상식을 휩쓸었으며, 1994년 동유럽 가요제 백야축제 대



상과 1992년 일본 NHK TV 아시아 5대 스타상, 1992년 ABU 국제가요제 최우수인기가수상 등 해외에서도 활약했다.

1998년 소속사 변모 대표와 결혼하며 가수 활동을 접고 가정에 전념했으며 2013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자경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양수경은 9일과 16일 방송될 KBS 2TV '불후의 명곡'의 '양수경 특집'에 출연하는 등 앨범 발매와 함께 방송 활동에도 나선다. 그가 방송에 출연하는 건 19년 만에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는 알리, 문명진, KCM, 벤, 솔지, 남우현, 정동하, 더러쉬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암살' 제작사 측 "작가와 합의 없이 강경대응 할 것"

영화 '암살'의 제작사인 (주)케이퍼필름은 소설가 최종림 씨가 이 영화가 자신의 소설 '코리아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신청한 조정 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아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8월 법원에 영화 상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 4월 14일 같은 이유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최씨는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닌 국제적 기구의 판단을 함께 듣겠다고 WIPO에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케이퍼필름은 "한국영화와 한국소설의 표현 여부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채 세계기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고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케이퍼필름은 최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공개토크쇼 50 안녕 우리말(재)	00 수상한 휴가(재)	00 청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토크쇼
1	00 시청자질문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사람들) 55 감성애니 하루			
2	00 한국인의 밥상 50 시사기획 창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닝생활제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키 이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roller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안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토크쇼 20 일일드라마 (금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뉴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 라인

EBS1		7월 6일(음 6월 3일 己丑)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10 세계사 시간여행
05:30 건강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느타리낙지 초무침과 멸치 고추 자박이)	15:20 꼬마철학자 후기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06:10 세계의 눈	12:00 EBS 정오 뉴스	15:50 바오밥집의 파오파오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00 출동! 슈퍼왕스(재)
07:30 주사위 오정 큐비슈	12:40 지식채널 e	16:30 방귀대장 똥똥이(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초대석	16:45 똥똥왕 유치원 1~3(재)
08:00 똥똥왕 유치원 1~3	13:40 사이먼3 왔다 사촌지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45 방귀대장 똥똥이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9:00 출동! 슈퍼왕스	14:00 책과 팡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연마이로봇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내 꿈은 연예)	15:0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 프리덤
		22:45 극한직업 (이동식 푸드카 제작)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6일(음 6월 3일 己丑)
<p>子 48년생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60년생 한 가지를 잘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리라. 72년생 능률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유망하다. 84년생 집착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72, 76</p>	<p>午 42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54년생 긴요한 볼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마라. 66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78년생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니 인과응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51, 33</p>
<p>丑 49년생 일시적 한국인이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된다. 61년생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73년생 성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85년생 우열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0, 41</p>	<p>未 43년생 혼신의 힘으로 매진해야 겨우 정취할 수 있겠다. 55년생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7년생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79년생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35</p>
<p>寅 50년생 끈속스러운 부탁을 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 62년생 보다 큰 행보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74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86년생 단안을 내릴 단계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55, 10</p>	<p>申 44년생 다투면 손해요, 양보하면 득이다. 56년생 실행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68년생 제게 맡긴 것을 잘 살피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80년생 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 두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07</p>
<p>卯 51년생 분수를 지키던 화도 비껴가는 법이다. 63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쌓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87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차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93, 88</p>	<p>酉 45년생 혼동하기 쉬우나 아는 길도 물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57년생 금에 휘둘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69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81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48, 45</p>
<p>辰 40년생 앞만 보고 달려라. 52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 64년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세이다. 76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88년생 느낌만으로 판단한다면 오류를 범한다. 행운의 숫자 : 58, 69</p>	<p>戌 46년생 지금 추스르지 못하면 더 영망이 될 수 있다. 58년생 예정된 절대로 진행되는 것이 발전적이다. 70년생 어중간하다면 아예 하지 않음만 못하다. 82년생 순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4, 01</p>
<p>巳 41년생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53년생 평소 애 썼던 꿈이 비상 시에는 약이 될 것이다. 65년생 손쉽다. 77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89년생 상호 보완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79, 04</p>	<p>亥 47년생 세밀한 시각으로 정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희망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리라. 71년생 노고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관생하는 동세이다. 83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6, 08</p>